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957>

JCCT 2023-9-115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김민정*

Kim Minjeong*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H시에 소재한 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112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교직인성이 나머지 두 변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 보편인성, 노력의 꾸준함 요인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교직선택동기 및 인성, 그릿의 향상을 통한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 설계 및 이의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12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f a university in City H, Gyeonggi Province.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and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flourishing. Among these variables, teaching personality had a relatively stronger impact compared to the other two variables. Furthermore, examining the impact of sub-factors of the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and grit on flourishing revealed that active and passive motives for teaching, general personality, and consistent effort influenced the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flourish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the design and verification of a program to promote flourish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 Motivation of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Flourishing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8월 2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August 20, 2023 / Revised: August 31, 2023
Accepted: Sept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mjkim00@jangan.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angan Univ, Korea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은 인간 삶의 최종 목표이자,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행복의 유의어로 언급되는 단어가 삶에 대한 만족감, 정서적 충만감, 주관적 안녕감 등임을 고려해 보면[1],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혼란, 정서적 빈곤, 자살률의 증가 등으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행복이 얼마나 가치있는 요소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 준다.

행복감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한 행복감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의 행복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3], 이론적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이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 오고 있다.

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유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4],[5],[6]. 유아는 자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성인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며[7], 이들의 정서 상태에 쉽게 영향을 받기에[8], 유아교사의 행복이 유아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

행복한 유아교사는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를 바탕으로 유아 및 동료교사, 학부모 등의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positive relationship)를 맺고, 자신의 업무에 몰입(engagement)하며, 그로부터 의미(meaning)를 찾아, 궁극적으로 성취(achievement)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Seligman[10] 제시한 플로리시(flourish)의 개념과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이를 높은 상태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행복의 ‘변영’ 상태를 ‘플로리시(flourish)’라고 명명하였다. 황해익과 탁정화[11]는 이와 같은 지속적 행복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행복플로리시(flourishing)’라고 명명하였으며,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라는 요소의 조화를 바탕으로 행복플로리시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행복플로리시란 단순히 순간적인 욕구 충족의 개념으로서의 행복이 아닌 삶의 가치와 의미 추구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보다 고차원적이며 실천적 차원에서의 행

복 개념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복플로리시한 유아교사는 유아와 보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며[4], 교사로서의 효능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12], 높은 직무 효율성을 바탕으로[13], 직무에 대한 높은 헌신과 열정을 보이게 된다[14]. 즉,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는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유아교사를 준비하는 단계인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6],[15].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으며[8],[10], 이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는 달리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12]. 교원양성과정 전체를 통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능력을 습득한 예비유아교사는 자신만의 행복플로리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후에도 행복한 유아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16]. 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아교사의 행복과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의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첫 번째 변인은 교직선택동기이다. 교직선택동기란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계기와 이유를 뜻한다[17]. 일반적인 직업적 선택 동기가 직업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선택동기 또한 교직으로의 입직과 이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이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19],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적성[20], 교사효능감[21], 교직에의 헌신[2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직선택동기는 대학생활 중 만족감[20], [23]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만족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24]. 삶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이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10],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직선택동기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구분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를 능동적, 수동적, 물질적 동기로 분류한 Huberman[25]의 구분 방법을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능동적 동기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선택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로, 가르치는 일과 유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동적

동기는 주변의 조인이나 환경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물질적 동기는 교직이 주는 경제적 이점과 근무조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직을 선택하는 외재적 동기를 뜻한다[26].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홍지명과 이신영[6]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중 능동적, 물질적 교직선택동기는 교직적성과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행복플로리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선행연구들은 행복플로리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만족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들인데, 백승학과 서동미[20]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중 능동적 동기가 만족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지현, 어성연, 경미선[23]의 연구에서는 능동적, 수동적 교직선택 동기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보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행복플로리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에서도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복플로리시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은 교직인성이다. 인성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이자[27], 개인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한다[28]. 인성은 종종 사람됨이나 도덕성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곤 하지만, 교사로서 요구되는 인성은 유아에 대한 이해와 사랑, 봉사성, 자발성, 인내심, 적극성, 융통성, 정서적 안정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직군의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29]. 선행연구에 의하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은 교직적성[30], 교사효능감[12] 및 교직윤리의식[31]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훌륭한 인성을 지닌 사람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32], 인성은 행복플로리시의 구성요소인 긍정적 정서, 긍정적 관계, 의미 등의 요소[10]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가 교직인성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강현미와 박소윤[15]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과 그 하위요인인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이 행복플로리시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중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관계 요인이 행복플로리시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엄은내[33]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과 그 하위요인이 모두 행복플로리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개념 및 직무수행과 행복플로리시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연과 백승선[16]의 연구 역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은 행복플로리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창의·인성 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선행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과 행복플로리시의 일반적 관계를 입증하고 있으나, 그 하위요인들로 상정된 인간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은 직업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적 특성과 교사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성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교직인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경령과 서은희[34]의 견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을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을 그 하위요인으로 하는 보편인성과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을 그 하위요인으로 하는 교사인성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요인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예비교사교육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그릿(grit)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열정과 노력을 의미한다[35]. 이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노력을 유지하는 힘 등과 관련 있기 때문에[35],[36], 교사 및 예비교사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다. 예비유아교사는 교원양성과정 중에서 여러 과목의 전공과 교직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과 협동과제 상황 등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실습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37]. 이에, 그릿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

고 예비유아교사의 학업과 진로를 지속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38].

그릿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35], 그릿은 행복감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5]. 실제로, 그릿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9],[40], 그릿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몰입을 잘 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 해당 변인이 행복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상기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릿은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갖는다[35]. 관심의 일관성은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며, 목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지속된 관심을 의미한다. 또한, 노력의 꾸준함은 끈기라는 말로 대변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인내와 의지를 뜻한다[36],[42].

선행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나[37],[42],[43], 그릿이 행복플로리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42]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은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위 요인인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 순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주와 김병만[43]의 연구에서 그릿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하위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그릿과 그 하위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환경의 마련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예비유아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유아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H시에 위치한 한 전문대학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2023년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 연구자의 학년별 수업 시간을 통해 대면으로 배부 및 수거되었으며, 총 응답 117부 중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112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1학년이 전체의 13.4%에 해당하는 15명, 2학년은 39.3%인 44명, 3학년은 전체의 47.3%에 해당하는 53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2.7%인 3명이었으며, 나머지 109명의 학생은 모두 여학생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 교직인성 측정도구, 그릿 측정도구,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가 각각 활용되었다. 각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것으로, 연구 시작 전, 유아교육 전문가 2인에게 표현의 양호도를 점검받은 후, 신뢰도 분석을 거쳐 연구에 활용하였다.

1)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

교직선택동기 측정을 위한 도구는 Huberman[25]의 교직선택동기 분류를 활용하여 남궁미경[26]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분류를 위한 맥락으로 수정·개발한 15문항의 5점 Likert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능동적 동기(예시문항 :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5문항, 수동적 동기(예시문항 :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및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여) 5문항, 물질적 동기(예시문항 :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직선택동기 측정도구의 최종 신뢰도(Cronbach α)는 각 하위요인별로 능동적 동기가 .87, 수동적 동기는 .83, 물질적 동기는 .74이며, 교직선택동기의 전체 신뢰도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직인성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교직인성 측정도구는 김경령과 서은희[34]가 예비교사의 교직인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한 32문항의 5점 Likert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등 직업의 구분 없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보편인성 14문항과 '나는 교직에 대한 가장 좋은 사회적 대우는 신뢰와 존경이라고 생각한다' 등 교사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교사인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직인성 측정도구에 대하여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편인성은 .86, 교사인성은 .93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직인성의 신뢰도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릿 측정도구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et al.[35]의 그릿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이수란[36]이 번역·개발한 12문항의 그릿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받는다(역채점 문항)' 등 관심의 일관성과 관련된 6개 문항과 '나는 수 년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본 적이 있다' 등 노력의 꾸준함과 관련된 6개의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5번 문항(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을 제외한 11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최종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Cronbach α), 관심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값은 .72, 노력의 꾸준함에 대한 신뢰도는 .70이며, 전체 그릿의 신뢰도는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측정을 위해 Butler와 Kern[44]의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를 변안하여 활용한 강현미와 박소윤[15]의 연구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정서(예시문항 : 전반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긍정적 기분을 느끼니까?), 몰입(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자주 몰입합니까?), 긍정적 관계(예시문항 : 당신은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미(예시문항 :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치롭고 보람이 있다고 느끼니까?), 성취(예시문항 :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니까?)를 측정하는 15문항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현미와 박소윤[15]은 해당 도구를 원 도구와 같은 11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일반적으로 Likert 척도의 가장 최적의 응답항목 개수는 5개로 알려져 있고[45], 복잡한 응답항목 수가 오히려 응답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46], 응답항목의 수에 따라 데이터의 속성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47],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들의 측정도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1점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활용된 행복플로리시 측정도구의 최종 신뢰도는 Cronbach α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특성을 점검해 보았다. 다음으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독립변인 및 그 하위요소와 종속변인 간의 기본적인 관련성을 점검해 보았다. 이후,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하고 행복플로리시를 종속변수로 한 두 차례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어떠한 변인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모든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24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112

Variables	MIN	MAX	M	SD
1. 교직선택동기	2.20	5.00	3.24	.50
1-1. 능동적 동기	1.40	5.00	3.79	.73
1-2. 수동적 동기	1.20	5.00	3.10	.73
1-3. 물질적 동기	1.00	5.00	2.83	.79
2. 교직인성	3.09	5.00	4.39	.39
2-1. 보편인성	2.64	5.00	4.36	.41
2-2. 교사인성	3.22	5.00	4.42	.45
3. 그릿	1.91	4.73	3.14	.47
3-1. 관심의 일관성	1.00	4.60	2.84	.65
3-2. 노력의 꾸준함	2.33	5.00	3.37	.54
4. 행복플로리시	2.33	5.00	3.87	.62

분석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성에 대한 평균 값이 M=4.39(SD=.39)로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평균이 M=3.87(SD=.62)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의 평균은 M=3.24(SD=.50)이며, 그릿의 평균은 M=3.14(SD=.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교직선택동기 중에서는 능동적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3.79, SD=.73), 물질적 동기가 M=2.83(SD=.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인성 중에서는 교사인성의 평균이 M=4.36(SD=.41)이 보편인성의 평균인 M=4.36(SD=.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노력의 꾸준함에

대한 평균이 M=3.37(SD=.54)로, 관심의 일관성에 대한 평균인 M=2.84(SD=.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 행복플로리시의 상관관계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직인성 및 그의 하위요인과 행복플로리시 간에 $r=.55(p<.01)$ 에서 $r=.63(p<.01)$ 까지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직선택동기와 그 하위요인 중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와 행복플로리시 사이에 $r=.33(p<.01)$ 에서 $r=.47(p<.01)$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릿과 행복플로리시는 $r=.31(p<.01)$ 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의 꾸준함과 행복플로리시와의 상관관계는 $r=.52(p<.0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변인들과 행복플로리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며, 교직선택동기 중에는 능동적 동기가 수동적 동기보다 행복플로리시와 더욱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r=.00, p>.05$) 및 그릿의 하위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r=-.03, p>.05$) 요인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행복플로리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상관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N=112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3	3-2	3-2	4
1. 교직선택동기	-										
1-1. 능동적 동기	.59**	-									
1-2. 수동적 동기	.83**	.36**	-								
1-3. 물질적 동기	.61**	-.14	.33**	-							
2. 교직인성	.36**	.59**	.21*	-.04	-						
2-1. 보편인성	.24*	.40**	.11	-.01	.87**	-					
2-2. 교사인성	.41**	.63**	.24*	-.05	.94**	.65**	-				
3. 그릿	.10	.14	.09	-.02	.19*	.30**	.08	-			
3-1. 관심의 일관성	-.14	-.08	-.12	-.09	-.09	.05	-.18	.78**	-		
3-2. 노력의 꾸준함	.32**	.31**	.27**	.07	.40**	.42**	.32**	.74**	.16	-	
4. 행복플로리시	.40**	.47**	.33**	.00	.63**	.60**	.55**	.31**	-.03	.52**	-

* $p < .05$, ** $p < .01$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행복플로리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실시 전, 먼저, Dubin Watson 검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그 수치가 1.81로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2에 가깝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표 3.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Motivation of the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N=112

Variables	B	SE	β	t	F	R ²	
진입변인	교직인성	.82	.12	.52	6.77**	30.84**	.461
	그릿	.25	.09	.19	2.65*		
	교직선택 동기	.24	.09	.19	2.54*		

* $p < .05$, ** $p < .01$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세 독립변인이 모두 투입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30.84$, $p < .01$), 행복플로리시 전체 변량의 46.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461$). 다음으로,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직인성($\beta=.52$, $p <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과 교직선택 동기가 각각 $\beta=.19$ ($p < .05$)로 교직인성보다는 다소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소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소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행복플로리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실시 전, Dubin Watson 검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그 수치가 1.8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선택(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소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4>과 같이, 교직인성 하위요인 중 보편인성,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의 꾸준함,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 중 능동적 동기 및 수동적 동기가 투입된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27.75$, $p < .01$), 행복플로리시 전체 변량의 5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509$). 한편,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 교직인성 중 교사인성, 그릿 하위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 요인은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예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의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Sub-factors of Motivation of the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Personality, Grit on Flourishing

		N=112					
Variables		B	SE	β	t	F	R ²
진입변인	보편인성	.61	.12	.41	5.18**	27.75**	.509
	노력의 꾸준함	.29	.09	.26	3.34**		
	능동적 동기	.14	.07	.17	2.13*		
	수동적 동기	.13	.06	.16	2.11*		
제거변인	물질적 동기			.61	.12		
	교사인성			.29	.09		
	관심의 일관성			.14	.07		

* $p < .05$, ** $p < .01$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직인성의 하위요인인 보편인성($\beta = .41, p <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그릿의 하위요인인 노력의 꾸준함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1$).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beta = .17, p < .05$)과 수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beta = .16, p < .05$)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변인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릿은 행복플로리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교직인성의 영향력은 다른 두 변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현미, 박소윤[15], 심재연, 백승선[16], 엄은나[33]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으며, 가르침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교사의 사람됨을 언급한 선행연구자들[20]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교직인성을 보편인성과 교사인성으로

구분하여 그와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있다 할 것이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이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이라는 보편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해야 할 것이며, 예비유아교사의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 등의 교사인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정 인성 관련 정규 교과와 학습(예: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5].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강정원[1], 홍지명, 이신영[6], 백승학, 서동미[20], 윤지현, 어성연, 경미선[23] 등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예비유아교사는 행복한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교직에 입직하기로 결심한 본인의 동기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이것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의 절감과 교원하락 등의 이슈로 인해, 교직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이미 교직에 입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하려는 동기가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48],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선택하는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은 교원양성과정 전반을 통한 진로교육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그릿이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서현아, 엄세진[37],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42]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은 교직을 향한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함의해 주는 것이다. 이는 행복플로리시가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가치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있다고 할 것이다[10].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상담과 튜터링의 확대,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및 탐방, 선배 교사들과의 멘토링 등

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것의 하위요인들이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직선택동기 중에서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 및 수동적 교직선택동기가, 교직인성 하위요인 중에서는 보편인성이, 그것 하위요인 중에서는 노력의 꾸준함이 각각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듯이,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능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수동적 교직선택동기와 물질적 교직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연구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왔다[1],[6],[20],[23]. 특히, 윤지현 외[23]의 연구는 능동적, 수동적 교직선택동기가 만족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능동적 및 수동적 교직선택동기의 중요도를 다시금 입증해 주었으며, 이의 향상을 위한 자원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직선택동기 중 물질적 동기는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직의 안정성이나 급여 등의 조건이 교사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님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이 행복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시 교사라는 직업이 갖는 물질적 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학생의 내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도 등의 수동적 동기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직인성 중 교사인성이 행복플로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연구자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사인성과 행복플로리시 간의 높은 상관관계(<표 2> 참조)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교사인성이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는 교사인성보다는 보편인성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교직인성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던 여러 선행연구들은 교직인성을 인간

애,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으로 구분해 왔고, 이와 행복플로리시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해 왔다[15],[16],[33]. 그러나, 이는 교사로서 필요한 인성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에게 필요한 보편적 속성을 띤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분류 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속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 연구를 통해 교사인성과 행복플로리시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의 하위요소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의 일관성은 행복플로리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노력의 꾸준함만이 행복플로리시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높은 열망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함의해 주는 결과이다. 그것이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성취되는 특성임을 고려해 볼 때[35],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길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중도탈락 없이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교직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것의 하위요소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가 두 변인 모두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42]과 두 변인 모두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43]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두 변인 중 노력의 꾸준함만이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와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을 다양화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그것 하위요인이 행복플로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것 향상 프로그램의 설계와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진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보인 연구이기도 하다. 이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한 3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것의 하위요인들 중 일부 요인이 행복플로리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지 못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각 변인의 효과를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계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SEM) 등을 활용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교직인성, 그것이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행복플로리시 향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격 강점에 의한 것[49],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것[50], 인성을 기반으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으나[5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직선택동기 향상 및 그것의 향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행복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들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향상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예비유아교사가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체화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현직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행복한 유아교사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J.W. Kang,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n Teacher 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0, No. 3, pp. 199-221, 2016. (DOI:10.21184/jkeia.2016.06.10.3.199)
- [2] N.H. Do, Y.J. Bae, and J.Y. Kim, "The Way to Improve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 [3]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Commentary", Seoul: MOE & MOHW, 2019.
- [4] H.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2011.
- [5] Y.A. Kwon, and H.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living a Calling and Gri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alling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7, pp. 251-277, 2019. (DOI:10.22251/jlcci.2019.19.17.251)
- [6] J.M. Hong, and S.Y.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Aptitude, Major Satisfaction, and Flourishing i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3, No. 3, pp. 115-136, 2019. (DOI:10.32349/ECERR.2019.6.23.3.115)
- [7] L. Steinberg, D.L. Vandell, and M.H. Bornstein, "Development: Infancy Through Adolescence", MA: Cengage Learning, 2010.
- [8] J.H. Tak, "Difference in Flourish according to Early-childhood teachers' Self-estee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315-335, 2016. (DOI:10.22251/jlcci.2016.16.9.315)
- [9] K. Van Petegem, B.P. Creemers, Y. Rossel, and A. Aelterma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Teacher Behavior and Teacher Wellbeing", *The Journal of Classroom Interaction*, Vol. 40, No. 2, pp. 34-43, 2005.
- [10] M.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2011.
- [11] H.I. Whang, and J.H. Tak. "The moderation role of savoring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flourishing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3, No. 4, pp. 153-177, 2014.
- [12] J.W. Go, "The Effects of Sense of Happiness o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eacher Efficacy of

-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3, No. 5, pp. 156-165, 2019. (DOI: 10.21184/jkeia.2019.7.13.5.155)
- [13]Y.G.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Job-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20.
- [14]E.S.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hild Care Teacher’s Self-Resilience, Child Care Efficacy, Job Stress, Devotion and Happiness”, Doctoral dissertation. Busan: Dong-A University, 2015.
- [15]H.M. Kang, and S.Y. Park,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haracteristics on Flourish”,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3, No. 5, pp. 93-109, 2017. (DOI:10.14698/jkce.2017.13.05.093)
- [16]J.Y. Shim, and S.S. Baek,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go 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on Their Happiness Flourish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4, pp. 537-552, 2021. (DOI:10.22251/jlcci.2021.21.14.537)
- [17]J.H. Tak, and M.R. Lee, “The differ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ispositions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teachers’ motiv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4, pp. 545-566, 2017. (DOI: 10.22251/jlcci.2017.17.14.545)
- [18]I. Rots, G. Kelchtermans, and A. Aelterman, “Learning (not) to become a teacher: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job entrance issu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28, No. 1, pp. 1-10, 2012. (DOI: 10.1016/j.tate.2011.08.008)
- [19]H.J. Lee, “Self-Encourage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ntry Motivation and Teaching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7, No. 3, pp. 65-82, 2017. (DOI: 10.21213/kjcec.2017.17.3.65)
- [20]S.H. Baek, and D.M. Se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s for Choosing Teaching Profession, Aptitude and Character for Teaching Profession, and Major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5, pp. 1237-1261, 2019. (DOI: 10.22251/jlcci.2019.19.15.1237)
- [21]Y.J. Kim, and H.K. Won, “Difference in teacher motivation and passion for teaching according to the disc behavior type of pre-kindergarten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4, pp. 239-263, 2017. (DOI: 10.20437/KOAECE22-4-11)
- [22]H. Kim, “A study on teacher’s motivation, passion for teaching, and teacher commitment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2, pp. 103-121, 2016. (DOI: 10.22251/jlcci.2016.16.12.103)
- [23]J.H. Yoon, S.Y. Auh, and M.S. Kyung, “The influences from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Professional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University Satisfaction among the Students from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4, pp. 819-832, 2023. (DOI:10.22251/jlcci.2023.23.4.803)
- [24]S.Y. Gu,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Wonkwang University, 2017.
- [25]M. Huberman, “The lives of teacher” NY: Teachers College Press, 1993.
- [26]M.K. Nam-Kung, “Effect of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on Commitment to Teaching and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Master Dissertation. Seoul: Hanyang University, 2011.
- [27]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Dictionary of Special Education”, Seoul: Hawoo Publishing, 2018.
- [28]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ived 08.11.2023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29]J.Y. Kim,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on Their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 85-93. (DOI: 10.17703/JCCT.2023.9.4.85)
- [30]Y.G. Lee, and J.W. Kim, “Relations of Personality to Teaching Aptitude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6, pp. 49-66, 2016.

- [31]H.M. Kang, and H.A. Seo, "Effect of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on teaching ethics consciousnes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the mediating active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7, No. 4, pp. 963-981, 2017. (DOI: 10.18023/kjece.2017.37.4.039)
- [32]J.S. J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sonality(Insung) Self Assessment Scale for Preschool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33]E.N. Eom,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and Their Ego resilience, Happiness and Teacher 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1, pp. 53-78, 2016.
- [34]K.R. Kim, E.H. Seo,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aracteristics Self-monitoring Instrument for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1, No. 1, pp. 117-139, 2014. (DOI:10.24211/tjkte.2014.31.1.117)
- [35]A.L. Duckworth, C. Peterson, M.D. Matthews, and D.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 [36]S.R. Lee,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4.
- [37]H.A. Seo, and S.J. Eom, "The influence of the creative persona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grit: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8(2), 173-197, 2019. (DOI:10.30761/ecece.2019.18.2.173)
- [38]H.W. Lee, J.H. Tak, and M.R. Lee, "The differenc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cluster types based on the gri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7, No. 3, pp. 249-268, 2017. (DOI:10.18023/KJECE.2017.37.3.012)
- [39]M.J. Nam,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regulation, and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Daegu: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8.
- [40]I.H. Baek,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Counselor's GRIT and Burnout: The Mediation Effects of Mindfulness", Master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2018.
- [41]K.R. Von Culin, E. Tsukayama, and A.L. Duckworth,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9, No. 3, pp. 306-312, 2014. (DOI: 10.1080/17439760.2014.898320)
- [42]J.H. Park, H.A. Seo, and S.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ubjective happines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7, No. 3, pp. 105-126, 2018. (DOI:10.30761/ecece.2018.17.3.105)
- [43]J.J. Kim, and B.M. Kim,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ademic Self-Efficacy and Grit on Happ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1, pp. 717-728, 2018. (DOI:10.35873/ajmahs.2018.8.11.068)
- [44]J. Butler, and M.L. Kern, "The PERMA-Profiler: 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 6, No. 3, pp. 1-48, 2016. (DOI:10.5502/ijw.v6i3.526)
- [45]E.P. Cox, "The optimal number of response alternatives for a scale: a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7, No. 4, pp. 407-422.
- [46]S.H. Ryu, and J.H. Yoon, "The Use of Likert Scale in Community Nutrition Research: 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 14, No. 5, pp. 600-608, 2009.
- [47]J. Daws, "Do data characteristics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cale points used? An experiment using 5-point, 7-point and 10-point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Vol. 50, No.1, pp. 61-77, 2008.
- [48]S.G. Hong, "Generation M-Z teachers cynical about teaching and promotion" Retrieved 08.23.2023. from <https://21erick.org/column/9204/>, 2022.
- [49]M.J. K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Based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 Doctoral Dissteration, Busan: B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50]N.K. Seo, "Development of Positive Relationship Building Program to Enhance Early Childhood Teachers' Occupation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Gyunggi: Anyang University, 2020.

[51]J.Y. Ryu, and S.H. K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0, No. 2, pp. 137-165, 2015.

※ 이 논문은 2023년도 장안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